

What is the Objective of UNISIST and how to Accomodate in Korea

UNISIST의 目的과 韓國의 受容 (下)

玄 圭 燮
國立中央圖書館

차 례

- 1. 머리말
- 2. UNISIST의 目的
- 3. UNISIST의 組織
- 4. 各組職에 負課된 課題
 - 4.1. 各國의 政府가 맡어야 할 課題
 - 4.2. 情報學界가 맡아야 할 課題
- 5. 韓國에서의 受容
 - 5.1. 國內의 現況
 - 5.2. 問題點
 - 5.3. 要約과 結

4.2 情報學界가 맡아야 할 課題

Unisist에서 범위짓고 있는 情報學界(情報關係 分野 全體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정보관계분야·학계를 말한다. 편의상 정보학계라고 하여 둔다.)는 다음의 네가지 카테고리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1) 保存所(Repositories) 여기에는 圖書館 Depositories, clearing house가 包含되어 있다. 2) 基本情報서비스(Basic access services) 여기에는 索引 및 抄錄 奉仕 센터, 번역서비스가 포함된다. 3) 데이터 센터(Data center) 주로 統計의 또는 計量的 數値만을 취급하는 센터 4) 情報센터(Information center)¹⁸⁾ 이들 네개의 범주에 屬하는 機關에 從事하는 모든 人員과 情報學을 專攻하는 學者가 여기서 말하는 情報學界(Information professional group)가 된다. 이들이 展開하여야 할 課題는 計劃指針 7서부터 8, 9, 10, 13, 14가 된다. 이 중에서 7, 8만이 核心적요소이고 나머지 9, 10, 13, 14는 全部 계획의 準據 요소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情報學界가 맡아야 하는 大部分의 課題는 Unisist가 展開하는 計劃과 共通性 및 連帶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Unisist의 諸計劃에 積極的 part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제 그 內容을 간결하게 살펴 보자.

4.2.1 計劃指針 7의 內容(科學圖書館의 制度的 確立)

Unisist 計劃은 먼저 圖書館의 重要性을 再確認하면서 다음과 같은 指針을 提示하고 있다. 強力한 科學圖書館制度는 오늘 날의 科學情報變換의 本質的인 要素의 하나로서 再確認되어야 한다. 이 制度로서의 圖書館組織의 問題는 계획지침 15와 연결되어 질 것이며 (行政政府의 역할) 도서관인은 이를 爲하여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事項을 強力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 科學圖書館은 國際的 諸般 協約이 遵守되는 體制로 育成되어야 한다.

2) 또한 特殊形式의 資料(즉 Technical Report, Unpublished material, Dissertation, Theses, Review papers, microfilms)를 重點的으로 다루는 depositories나 Clearing house가 育成되어야 한다.

한편 Unisist는 이를 科學圖書館의 育成에 必要한 最少限의 基準을 마련하여 各國의 科學圖書館의 發展方向을 提示하여야 한다.¹⁹⁾

Unisist 報告書에 비친 圖書館은 「傳統의 이고 保守의 이어서 時代的 變遷에 민감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최근 그들의 活動이 이를 탈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圖書館이 情報의 媒介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重要機關임을 稱명하고 있다.²⁰⁾

4.2.2 計劃指針 8의 內容(基本情報 서비스 機關의 育成)

基礎的 情報서비스機關(Basic Access Service)은 ①抄錄 ②索引 ③翻譯의 諸業務를 담당하는 機關들로서 이들을 重要한 情報謀體의 한 구름으로 育成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現在 이들이 展開하고 있는 諸業務는 改善되어야 하며 그 方向은 이른바 世界的 規模의 情報分擔作業(Information sharing)이 可能하도록 方向지어져야 한다. 이를 爲하여서는

18) Unisist Report. ibid. p.100 (6.4.1)참조.

19) Unisist Report. ibid. p.101 참조.

20) Unisist Synopsis. op. cit. p.50 참조.

1) 一定原則에 立脚한 抄錄 및 索引의 作成을 通하여 國際間의 情報交換의 實現을 可能하게 하며

2) 索引要語의 効率化를 期하며

3) 번역센터의 설치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以上の 計劃은 政府와 科學界의 積極적인 支援이 要望되는 일들이나 情報科學界에 종사하는 專門人의 使命이 보다 強調되고 있다.

4.2.3 計劃指針 9의 內容(情報센터의 育成)

特定主題의 情報를 分析 配布하는 業務를 主業務로 하는 情報센터(Informaion Analysis Centre)는 基本 情報서비스 機關의 作業을 再補充하는 하나의 重要機關으로 存在되어야 한다. 이러한 機關으로서의 役割은 다음의 세가지 點에 보다 重點의인 努力이 傾注되어야 한다.

1) 科學者들의 研究·調査時間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2) 情報의 分析 및 綜合의 效用을 높여야 한다.

3) 分析된 情報 못지 않게 組織된 知識을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즉 綜合報告書, 技術現狀分析報告書 등의 간행이 보다 重要한 業務가 되어야 한다)

以上の 業務를 展開하는 情報센터의 存在는 圖書館의 代替物(not substitutes for)로 생각해서는 않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圖書館組織網의 補充機關(be complements of the library system)으로 認識되고 또 存在되어야 한다.²¹⁾

4.2.4 計劃指針 10의 內容(데이터센터의 育成)

主로 數值的 資料를 保存하고 分析하는 데이터센터는 Unisist 를 爲한 또 하나의 重要한 機關으로 認識되어야 한다. 情報學界에서는 이들에 對한 各별한 關心을 기우려야 하며 데이터센터를 育成하기 爲한 適切한 社會로 부터의 投資, 그리고 그 創設을 促進시키는데 必要한 諸般 協力을 促求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4.2.5 計劃指針 13의 內容(人力開發)

情報學界는 專門人의 育成을 爲한 努力을 기우려야 한다. 專門人은 첫째는 科學者(Scientist)를 意味하며 둘째로는 情報關係 專門家(Information specialist)를 意味한다. 이들은 많은 先進國의 自發的인 教育의 實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不足한 實情에 놓여 있다. 이 不足한 人員을 教育함은 바로 Unisist計劃의 成果와도 直接的으로 結付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計劃이 樹立되고 實踐되어야 한다.

1) 各國은 圖書館人(또는 情報專門家)의 教育計劃을

樹立하여 汎國際의 水準의 情報流通體制가 要求하는 바의 教育을 實踐하여야 한다.

2) 汎國家的(multi-national)으로 使用될 수 있는 教育指針書 또는 教育資料를 刊行한다. 특히 컴퓨터에 依한 情報蓄積과 檢索의 教育이 實施되어야 한다.

3) 國際的機關(즉 FID, IFLA, IFIP)등은 이 教育計劃에 實質的인 담당자가 되도록 획책되어야 한다.

이들 教育計劃은 主로 計劃依存的 要素의 하나로서 Unisist自體의 活動에 依存되게 될 것이다.

4.2.6 計劃指針 14의 內容(研究와 開發)

情報學界는 最近 急激하게 發展되어 오고 있는 情報科學(Information Science)에 對한 보다 깊은 研究와 開發이 促進되어야 한다. Unisist와 같은 汎世界의 情報의 共有制度는 實際로는 情報科學의 理論的 適用을 基礎로 하지 않는 限 成功的인 結實을 맺기는 거의 不可能하다. 이 情報科學에 對한 研究와 開發은 아래의 세가지 點에 集中되어야 한다.

1) 情報分析의 理論的技法의 適用에 關한 研究(言語學的分析·數理的分析 및 사이버네틱 등)

2) 情報分析機關의 體制分析(System analyeis) 및 새로운 制度의 創設과 運營에 關한 研究(Unisist와 連關되어진 制度의 研究)

3) Unisist 自體內에 情報科學 關係에 關한 文獻情報의 頒布 및 分析體制의 確立(情報科學研究의 촉매적 구실을 할 수 있는 文獻情報의 配布業務)

이상의 研究課題는 情報學界에 종사하는 모든 專門人·團體·國際的 組織體 등이 大學 參與하여 하며 특히 Unisist 에서는 自體組織으로서 R.&D.를 開發시켜 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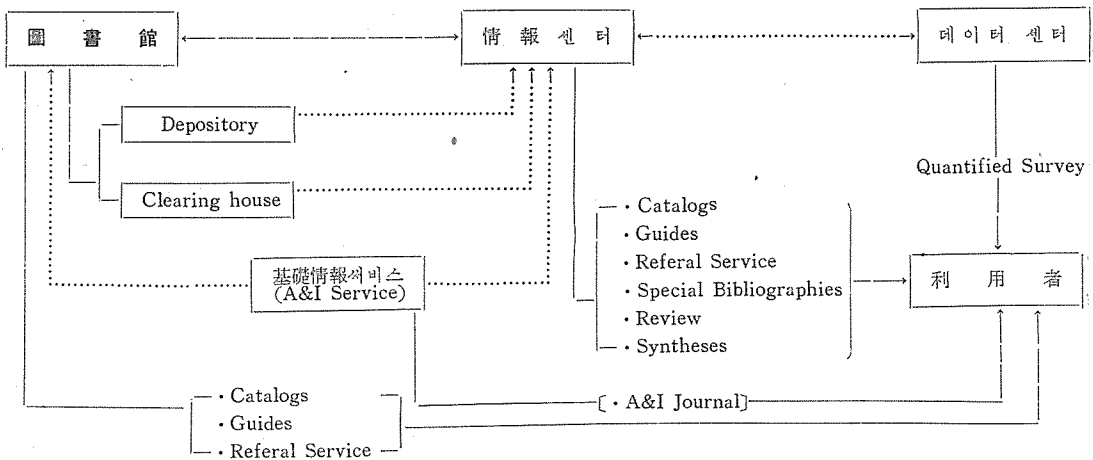
4.2.7 要約

情報學界가 完遂하여야 할 課題는 먼저 各各의 機關別 區劃을 理解하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 區劃은 4개로 形成되어 있다. ①圖書館(保存所 Repography 라는 用語로 되어 있다) ②抄錄·索引 奉仕機關(基礎的 情報 서비스 Basic Access Service) ③情報센터(Information Center) ④데이터 센터(Data centre)가 그것이다. 圖(9)는 이를 4個의 機構가 展開하는 諸業務와 그들이 生産하는 產成物의 關係를 利用者(User)와 結付시켜 圖解한 것이다.²²⁾ 이 圖解를 參考하면서 各各의 特性和 情報學界가 遂行하여 할 일을 간주려

21) Unisist Synopsis. ibid. p.52 참조.

22) Unisist Report. p.26 參照 이 圖은 Report에 提示된 바 있는 內容을 간결하고 읽기 쉽게 다시 풀이한 것이다. 原圖에는 生産者서 부터 利用者까지의 過程이 基本서비스 二次서비스 三次서비스로 단계지워 해석되어 있다.

圖(9) 科學情報의 Flow



보면 다음과 같다.

1) 圖書館은 出版된 資料(Published Materials)만을 對象으로 다루어서는 않된다. 未出版된 資料(Unpublished Materials)를 다루는 Depository(學位論文 研究報告書を 취급한다)나 Clearing house(同一한 性格이나 그 頒布를 主對象으로 하는)를 設置하여야 한다.

2) 情報센터는 情報의 分析뿐만 아니라 組織화된 知識(not analytic information but also the knowledge)을 供給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센터는 순수한 數值的 生資料의 保有와 配布에 目的을 두어야 한다.

4) 抄錄·索引의 奉仕機關은 情報센터와 아울러 強力한 科學圖書館制度의 補完體의 하나요 理解되어야 하지 그것 自體가 圖書館의 代替物이 아니라는 點이 提示되어 있다.

이렇게 構成되는 情報學界는

1)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Network를 形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그들의 모든 業務는 國際적으로 實施되고 있는 書誌의 標準化의 規則과 권고를 받아 드러 積極적으로 適用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育成되고 또 創設되어야 한다.

4) 情報學界의 많은 專門인이 養成되어야 한다. 그 方向은 世界的 情報共有體制를 可能하게 하는 基盤에서 育成되어야 한다.

5) 情報科學이 研究되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에 依한 研究가 深化되어야 한다.

5. 韓國에서의 受容

Unisist의 目的이 世界科學情報의 共有體制를 確立

함에 있으니 만치 그 制度속에 들어 우리의 研究生成物을 投入하고 各國으로 부터 投入된 情報를 保有할 權利를 얻는다는 것은 大端히 重要な 意味를 갖는다. 말하자면 國際的인 文化融合의 通路가 되는 이 計劃에 우리는 積極的인 參與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重要性에 비추어 Unisist에 對한 國內의 움직임도 자못 活潑한 바 있어 이 계획을 爲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韓國委員會가 結成되었다. 그러나 根本적으로 Unisist를 爲한 國內의 움직임은 그 基本方向과 原則設定에 分明한 問題點을 內布하고 있어 이를 是正하지 않는 한 바라는 成果를 期待할 수는 없을 것임을 筆者는 指適하려 한다.

5.1 國內의 現況

1973年 5月 31일부터 6月 1日까지 유네스코 韓國委員會가 主催한 「世界科學 情報流通體制 세미나」가 關係分野의 많은 人士를 招請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개최되었다.²³⁾

이 세미나는 Unisist에 關한 國內 最初의 公式의인 움직임으로서 圖書館人·科學者·유네스코 關係人士 및 科學技術處의 關係人士가 參席하여 6個部門에 걸쳐 發表된 說明과 提案을 통하여 韓國의 Unisist計劃 受容에 對한 集中的인 討議가 있었다. 그 結果 다음과 같은 決定을 내렸다.

- ① Unisist韓國委員會를 設置한다.
- ② 그 委員會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傘下에 둔다.
- ③ 財源은 우선은 科學技術處에서 兪출받도록 한다.
- ④ 着手할 研究事業으로는 ㉠ISDS센터 設置에 關한 研究 ㉡標準化 ㉢情報實態調査 ㉣國文情報檢索用語의

23)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 세미나 報告書. 서울, 유네스코 한국委員會 1973. 75p. 비메플 參照.

開發 ④國內情報源 開發示範計劃을 展開한다라고 承明하였다.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이른바 國家 科學技術情報流通 시스템(Nassti)의 構想이다.²⁴⁾ 이 計劃은 세미나가 열리기 約 二個月前에 公式의으로 發表된 것인데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의 主要멤버가 合同으로 研究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構想이라는 題目이 말하여 주듯 어디까지나 「案」인듯 하다. 이 案은 科學技術處長官에게 Korstic에 依하여 建議되어 있다고 한다.²⁵⁾

한편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에서는 Unisist Synopsis를 한국어로 完譯하여 刊行하고 세미나 報告書를 펴내는 등 活氣를 띠었다.

또한 Unisist에 關한 여러 論文이 發表되었으며 그 中 비교적 자세히 說明된 것으로서는 아래의 몇 篇을 들 수 있다.

1) 金宗會 Unisist(世界科學情報시스템)의 概要 도서관 27(8), 1972, 8, pp.19—26.

2) 李海寬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Unisist)」 도협월보 15(1), 1974, 1, pp.4—6.

3) 金宗會 「世界科學情報시스템」의 發展 도서관 29(8), 1974, 9, pp.46—54.

以上이 筆者가 아는 限度內에서의 國內動向이다.

5.2. 諸問題點

上述한 바와 같은 活氣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韓國에 있어서의 Unisist 計劃의 受容은 그 出發點에서 부터 몇가지 問題點을 內布하고 있어 보다 效果的인 成果를 건우는데 失敗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問題點은 最初에는 微微한 것에 不過하지만 그 結果에 있어서는 深대한 蹉跌을 빚는 發射角度와 같은 것으로서 出發時의 諸 問題點은 大端히 重要한 意味를 지니게 된다. 이제 그 問題點을 간단히 살펴 보자.

5.2.1 Unisist 韓國委員會의 結成

Unisist의 韓國內 受容을 爲한 最初의 公開의인 組織이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傘下에 結成되었다.

이 組織은 「세미나」에서 主張된 韓國의 參與에 關한 提案에 基礎한듯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管理下에 두고 事務室도 그곳에 두는 原則에 立脚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委員會는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特別委員會로 結成이 된 것이다.²⁷⁾

單純하게 생각할 때 이 組織은 Unisist의 韓國內受容을 爲한 가장 適切한 方法인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委員會는 Unisist가 要求하고 있는 이른바 National Committee와는 그 結成原則에서 부터 鉅격한 蹉跌이라고 있다.

于先 Unisist를 爲한 우리들의 모든 努力은 그것이란 國家의 文獻情報政策이라는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國家의 水準과 範圍에서 그 領域을 생각하고 政策이라는 次元에서 그 効力を 發生시키는 두 가지 局面에서 生각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計劃指針 15서부터 19까지의 基本方針이며 Unisist에 關連있는 基礎的 命題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政府(Government)에 依하지 않은 어떤 組織도 그것을 Unisist를 爲한 國家委員會라고 命名될 수는 없다. 이 點은 1973年 7月 25日字로 各國政府에 回示된 유네스코總長의 公翰에도 分明히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ddressed a circular letter to Member States at the beginning of July in viting their government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from a UNISIST National Committee and to designate governmental agency to act as a national focal point for questions relating to the UNISIST programme.²⁸⁾

간혹 그것이 반드시 政府가 아니고 政府에 準하는 機關이라도 目的만 達成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論理가 成立될 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論理自體는 汎國家의 이란 概念과 政策의 次元이라는 觀點을 無視하거나 看過하였을 때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汎國家의 이란 含目的의性을 띤 國家全體의 公式的 宣言에 基礎하는 것이며 政策의 이란 公共力에 依한 誘導 즉 行政作用에 基礎할 때 成立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現在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傘下에 特別委員會로 構成되어 있는 組織은 國家委員會(Unisist계획에 따른 National Committee)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國家委員會를 形成하게 하기 爲한 準備委員會라야 마땅하다.²⁹⁾

다른 한가지는 이 委員會가 文敎部, 科學技術處,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의 機關長 및 關係官이 委員

24) 崔成溶 外 「國家科學技術情報流通 시스템의 構想」 情報管理研究 6(2) 1973. 3. pp.31—37 參照

25)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 세미나 報告書. ibid. p.19 參照

26)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 Unisist.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93 p.비매품

27) 세미나 報告書 p.73에 設置經過에 對한 說明 參照

28) Unisist Newsletter. No.3, 1973. p.7 參照.

29) 現在 世界的으로 各國에서 構成하고 있는 國家委員會(N.C)가 유네스코에서 계획하고 執行하는 計劃이기 때문에 또는 Unisist 事務局이 Unesco에 依속되어 있는 까닭에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傘下에 國家委員會를 두는 國家는 없다. Unisist Newsletter vol.2, no.1, 1974. p.8—9.

으로參加하고 있으니만치名實共히 國家委員會라 생각하는 見解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關係官이 委員인 故로 國家水準의 委員會라는 論理는 勿論 成立될 수 없고 이러한 構成自體가 거의 無意味하다는 點은 아마도 會議가 거듭될 수록 느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政府側의 Unisist에 對한 必要性이 說得되어야만 關係官의 注意가 集中될 것이며 政府側 主導型的 會議가 되어야 그 關心이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5.2.2 Focal point 의 指定

前述한 1973年7月 15日字 公翰에는 各國政府로 하여금 Focal point를 指定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國家가 F.P.를 指定하였는데 韓國에서도 外信에 依하면 科學技術處 企劃室 情報管理官이 指定되어 있다.³⁰⁾ 이 F.P.란 「汎國家的 水準에서 또 國際의 水準에서 情報資源을 開發하며 情報奉仕를 촉진함을 指導하고 자극하며 또한 調整하는 政府機關 또는 政府에 準하는 機關」을 의미한다³¹⁾라고 되어 있다.

韓國의 FP가 科學技術處에 設置된 것은 먼저 時間上으로 빠른 決定을 내렸다는 點에서는 훌륭한 處事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만 科學技術處에서 情報管理官을 두고 國家的 調整作業을 着手하였다고하여 또는 英國의 OSTI (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가 F.C.로 指適된 例가 있다고 하여 科學技術處가 FP가 된다는 것과 國家的인 眼目에서 過然 어느 機關이 FP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點은 全히 別個의 問題인 것이다. 이 問題는 이미 國際적으로 公表된 故로 可否를 論할 段階를 지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問題로 提起하는 所以는 앞으로 科學技術處의 情報管理計劃이 關係部處와의 緊密한 유대를 갖어야 비로소 效果的인 政策이 될 수 있다는 點과 大局의인 見地에서 情報의 流通計劃을 樹立하여야 Unisist가 目的하는 바의 成果를 얻을 수 있다는 點을 強調하고자 하는 것이다. 科學情報(Scientific Information)란 다만 自然科學(Natural Science)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最近 社會科學을 爲한 Unisist計劃이 論議되었음에³²⁾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基本的으로 科學情報란 文獻에 依한 情報라는 點에서 文獻의 所管機關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最少限 文獻의 政策的示現機構인 文化公報部와의 充分한 協意가 없이는 實質적으로 效果的인 成果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學術機關의 政策的示現機構인 文教部의 存在 또한 건밀한 유대가 맺어져야 할 것이다.

5.2.3 Nassti의 試案

Korstic의 主要멤버인 崔成溶氏外 5名의 合同研究로 이루어진 이른바 國家科學技術情報流通시스템(Nassti)의 計劃은 「Unisist에 參加하여 그 惠澤을 입기 爲하여」設計되어진 것을 3個의 必要性中 하나로 提示하고 있다.³³⁾ 이 計劃은 면밀한 分析和 多角的인 努力을 기우려 年次計劃까지 樹立한 勞作으로서 構想自體만 하더라도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國家計劃이라는 深大한 廣域性과, 複合的인 諸要素들의 有機的인 合成이 要求되는 致密性을 布容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問題들이 內在되어 있다고 指適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은 根本적으로 國家科學技術情報流通體制가 아니라 Korstic의 意慾的 自體 擴張計劃에 不過하다. 말하자면 「Korstic의 發展된 모습」이된 中樞的 綜合情報機關³⁴⁾(同計劃에 重要 Factor 의 하나임)이 地域的 限界性을 탈피하고 末端機構의 機能分權을 實現하는 支所의 設置計劃인 것이다. 이것은 Unisist가 바라는 國家制度로서 의 圖書館組織網의 形成(계획지침 7. 참조)에 위배되기도 한다.

적어도 國家計劃의 規模가 되려면 總合的이고 立體的인 有機性이 그 根本이 되지 않는 限 無意味한 것이다. 情報을 다루는 機關은 비단 Korstic 만이 아니다. 비록 Korstic 의 立場에서 볼 때 保守的이고 後退型인 自我滿足에 빠진 部門이라 할 지라도 圖書館의 機能은 傳統性과 歷史性을 이어온 命脈인 것이다. 國家計劃이란 이러한 部門들에 對한 考慮없는 除去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Unisist 계획지침에도 분명히 밝힌 바와같이 사려깊은 자극과 けん장을 겸한 相互協同과 共存의 터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계획지침 9. 참조) Nassti는 우선 基本的인 思考基盤에서 全國的인 Korstic의 支所設置計劃이라는 비좁은 臺地위에 서있을 自覺하여야 하며 國家計劃이라는 名稱을 使用하고 있는 의람됨을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計劃立案時 어디서나 發見되는 자질구래

30) Unisist Newsletter Vol.2, No.1, 1974, p.9. 韓國의 FP는 Information Management Directorate, 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로 되어 있다.

31) Unisist Newsletter op. cit. p.8. 참조

32) 「Social Science in Unisist」 FID News Bulletin 24. (7) 1974, 7. p.86.에 本誌에서 계획된 社會科學의 Unisist 會議報告 참조.

33) 崔成溶 外 「國家科學技術情報流通시스템(Nassti)의 構想」 情報管理研究 6(2):73, 4. p.31-32 参照

34) 崔成溶 外 ibid. p.32.에 中樞的 綜合情報機關에 對한 자세한 說明이 있다.

한 問題點을 除外하고라도 指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問題點은 이른바 中樞의 綜合情報機構가 自然科學全般 뿐만 아니라 社會科學에 이르기까지 「科學技術全般에 걸쳐 綜合的인 情報 서비스」를 하겠다는 點이다. 이는 現代의 文獻情報의 확산은 一個圖書館(또는 情報센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協同을 通하지 않은 어떤 도서관도 存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見解까지³⁵⁾ 完全히 無視한 過大意慾의 計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實地로 現在 醫學關係의 情報活動만 하더라도 醫學圖書館協會와 醫學圖書館들의 諸般業務方向이 그들의 指針에 重複 내지는 相互重疊된 過대한 機能擴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國家의인 眼目에서 볼 때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못하니까 또는 안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見解는 결코 건설적인 것이 아니다. 더구나 社會科學分野까지 全部 管轄하겠다는 것은 前述한 時代의 概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너무도 過대한 計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이 部分은 이미 있는 圖書館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展開하도록 計劃하고 이를 政府로 하여금 支援하도록 하는 分化的 協同의 建設的인 思考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國家計劃이라는 大局의 立場을 反映하는 規模가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點에서 金重漢氏가 試論한 바 있는 全國計劃案과 李承周氏가 舉論한 바 있는 制度에 關한 研究 등을 參考하였다면 좀 더 建設的이며 合理的인 計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³⁶⁾

5.3. 要約과 結

Unisist는 直接的으로는 圖書館界에 그리고 終局的으로는 國家經濟와 文化發展에 참으로 重要한 意義를 갖는 計劃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 計劃의 進展에 따라 우리들의 諸業務와 進行方向이 必然的으로 變化되어 갈 것이라는 點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關心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重要性에 對하여

圖書館界에서는 두가지 反應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지나치게 그 過敏性을 드러내어 急急하게 서두는 傾向과 다른 하나는 담당하리 만큼 둔화된 無反應의 態度이다.

이 두 傾向은 모두 결코 옳은 態度라 할 수는 없다. 성급한 態度는 目標設定에 있어 치밀한 分析과 그 總合的 判斷이 결여되어 重大한 蹉跎를 빚기 쉽다. 反面 둔화된 反應을 보이는 傾向은 前者보다도 더욱 나쁜 結果가 招來될 것이다. 圖書館界의 앞날을 左右할지도 모를 Unisist計劃에 非彈力的인 態度를 취하는 것은 크게 보아 圖書館史의 重大한 오류를 남기게 되는 것임을 自覺하여야 한다.

오늘의 우리는 결코 그것만으로 中止되거나 말소되어 버리는 過去의 中世紀와는 다르다. 모든 記錄手段의 發展과 그 容易性은 우리들의 行動에 하나 하나가 歷史的 事實로 남게 하고 있으며 더욱이 文化의 山脈을 이어가는 圖書館의 歷史는 다른 어떤 部門보다 歷史的 意味와 直結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적어도 지금의 모든 行動이 또 하나의 중요한 착오를 범하게 되지 않도록 各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Unisist의 韓國의 受容은 그 出發時부터 보다 깊은 思慮와 研究를 通하여 보다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圖書館의 對外關係는 경솔한 速決이었거나 無關心한 消極性에서 無爲로 끝나버리던 過去의 例가 너무도 많다. 最近에는 I.B.Y.行事が 그 좋은 本보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自我의 조그마한 利害關係를 떠나 大我의 굳건한 姿勢가 지금의 우리에게 絶실하게 要求되는 精神이라 아니할 수 없다. 歷史의 한 進行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한 이 潮流를 우리는 歷史의 한사람으로서의 存在로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35) 1956年 A.L.A의 公共圖書館 最低基準에 이미 協同을 通하지 않은 공공도서관의 無價値論이 分明하게 提示되어 있다.

36) 金重漢, 「韓國의 圖書館 發展計劃」(提案), 도협보 10(9) 1969. 11. p.306—313. 李承周「국가중앙도서관 계도에 관한 연구」Ⅲ. 도서관 25(10) 1970. 10—11월 pp.13—29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 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は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